

닛세이 극장은 1963년 10월에 베를린 독일 오페라의 공연으로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극장은 개장 당시부터 변함없이 그 디자인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 들어서자마자 5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극장은 히비야 극장 지구 일각에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무대 예술 극장 중 하나로 닛폰 생명보험 상호회사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건물은 건축가인 무라노 도고(1891~1984)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쇼와 시대(1926~1989)를 대표하는 건축의 일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공들여 만들어진 천장, 만나리이시(오카야마시 만나리 지역에서 채석되는 화강암) 기둥, 하얀 대리석 바닥, 레드카펫이 깔린 커다란 계단, 극장이 있는 층으로 이어지는 나선 계단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홀 내부에는 섬세한 장식이 되어 있어 극장의 무대 작품에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농담의 파란색, 분홍색, 흰색, 금색의 유리 타일 모자이크가 있으며, 2만 개나 되는 진주조개의 조개껍데기가 천장을 수놓고 있습니다.

극장의 수용 인원은 약 1,300명입니다. 오페라, 연극, 뮤지컬, 해외 작품의 리메이크 등 수많은 무대가 상연되고 있습니다. 닛폰 생명 전 사장인 히로세 겐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공연을 관람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대 작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즐기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사회 구성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닛세이 극장은 가족을 위한 연극과 콘서트도 제공하고 있으며, 도쿄 최고의 어린이 극장이기도 합니다.